

온라인 쇼핑족 '득템의 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가전과 패션업계를 비롯해 유통업계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넷째 주 금요일로, 해당 일을 기점으로 연말 쇼핑시즌과 최대 세일이 시작된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해 이른바 '득템' 기회가 많다.



◇이번 기회에 가전·IT제품 싸게 사볼까? =가전제품 브랜드 '다이슨'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특별전을 진행한다. 유·무선 청소기 8종류를 최대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이슨의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V7 motorhead'를 55% 상당 할인, 정가 64만8000원짜리를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이슨 V8 앵슬루트를 29% 할인된 가격인 355달러에 판매하고 3종 키트를 무료로 추가 증정한다.

삼성전자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코너'를 마련해 4K 화질의 QLED 스마트 TV 14개 모델을 할인한다.

품목은 75인치 QLED Q6FN 모델, 같은 모델 82인치 제품 등으로 약 40% 상당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OLED TV와 슈퍼 UHD TV 등 10여개 모델을 최대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역시 40% 상당 할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직구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역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스포츠 용품

美 블랙 프라이데이 꿀팁

가전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
다이슨 청소기 50% 할인
삼성·LG 고화질 TV 40%
아이폰X 등 애플도 이벤트

스포츠 용품

러닝데이·우먼스데이 등
롱패딩·운동화 최대 81%
코오롱몰·ABC 마트도 행사

해외직구 어디서

관세청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카드·배송대행지 주소 필수
아마존·이베이 등 사이트 많아

설 쇼핑 이벤트를 진행, 아이폰X와 에어팟, 애플워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패션업계도 대대적 할인 나서=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뉴발란스는 온라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매일 다른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21일 러닝데이, 22일 우먼스데이, 23일 러닝 블랙 프라이데이, 24~26일 풋볼데이 순으



로, 롱패딩부터 운동화, 트레이닝복 등 총 600여개 상품을 최대 81%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코오롱몰도 오는 25일까지 '코오롱몰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고 각종 패딩과 운동화 등을 최대 75% 저렴하게 판매한다.

ABC마트도 21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어메이징 세일'을 진행해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등 브랜드 신발을 최대 7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어디서 할까?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직구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유명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직구에 앞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결제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 카드, 배송대행지 주소가 필수적이다.

이밖에 국내 온라인쇼핑몰인 옥션과 위메프 등을 이용해서도 해외직구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옥션은 다음달 2일까지 해외직구 상품을 최대 56% 할인해주는 '블랙 에브리데이' 행사를 열고 추천을 통해 아이폰XS(256GB)와 애플워치 4세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100원 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겨울 두렵지 않아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 와이컨셉 매장)에서 직원들이 양털 소재로 제작해 보온성이 뛰어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베어파우 즐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최대 5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3일부터 1년에 단 2번 진행되는 '해외명품 시즌오프' 행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라다, 미우미우, 페라가모, 에트로, 버버리 등 10개 해외명품 브랜드가 참여해 각 브랜드별로 20~50% 할인에 나선다.

해외명품 상품군은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미리 정하여 매장에 방문하는 '목적구매' 경향이 분명한 상품군 중 하나다. 광주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구입 해외명품 구입을 위해 방문하는 사례도 많다는 게 롯데백화점측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상품군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광주가 아닌 타지역 고객의 매출 구성비는 28%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점은 이번 해외명품 시즌오프 기간 적극적인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해외명품 구매 이력이 있는 타지역 거주 고객을 지정해 시즌오프 행사안내 DM(판촉물)을 제작·발송하고, 인기아이템 소개와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다.

각 해외명품 브랜드에서도 버버리 30~50%, 에트로 20~40%, 막스마라·휴고보스 20~30%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프라다·미우미우·페라가모 역시 시즌오프 할인을 통해 고고 고객들에 위한 방문 유도에 돌입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외직구, 카드 결제하고 배송 물건 촬영해둬야

올 피해 사례 전년비 32% ↑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관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년 6932건→2017년 9675건→올해 9월 8781건 등 증가 추세로, 올해 접수된 것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할 때 현금

보다 신용카드 사용하고, 해외 배송대행시 파손 및 오배송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자료를 확보해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해외직구시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게 좋다. 또 고가 상품의 경우 공식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